춘천 성시신문

성시비전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기도운동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www.holycity.or.kr

발행인 : 한 균

2. 성탄절을 의미있게 보냅시다!
3. 성시화운동을 열방에 전하는 하늘의 찬양!
9. 우리 곁에 있는 山 용화산
12. 사랑하자! 배우자! 자활하자!(강원개활원)

2007년 12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109호

사랑과 소망의 계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 진정한 사랑을 전하러 오신 아기예수님을
맞이했던 동방박사와 목자들처럼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12월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2006년 성탄트리점등식 사진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특 집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냅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성탄의 달 12월이 오면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북 치는 어린 소년 라뭠뭠뭠" 등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 퍼진다. 찬란한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들이 눈을 즐겁게 한다.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선물을 교환하기도 한다. 성탄은 즐거운 계절이다. 성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성탄의 의미가 여기에 머무르는 것일까?

대체적으로 12월 25일이 서방교회의 축제일로 정착된 것은 379년이나 380년이었다. 386년 12월 25일에 처음으로 성탄절 행사를 드렸다고 콘스탄틴노플의 대주교였던 존 크리소스톰은 설교했다. 또 이러한 전통은 동방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432년 경 알렉산드리아와 그 이후 예루살렘에서도 지키게 되었다. 또 동방교회의 전통인 공현일도 함께 서방교회가 채택하므로 성탄절과 공현일을 함께 지키게 되었다. 이후 로마 카톨릭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성탄절과는 무관한 여러 이교도 풍습들을 성탄절 축제에 채택하였다. 성탄절에 마리아와 예수님을 함께 숭배한다든지, 다산이나 성적 능력을 갖추거나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이교도들이 믿었던 상록수를 성탄트리로 삼는다든지,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던 4세기 소아시아의 미라(Myra)의 감독 니콜라스(Nikolaas)를 주인공으로 삼는다든지, 고대 바벨론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기 위해 헝횄던 촛불을 밤새 밝힌다든지 하는 것 등이다. 이처럼 지금의 성탄절 축제에는 많은 이교적 풍습이 있다. 그래서 성탄절 자체를 부정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성탄절 의미, 즉 성육신이나 그리스도의 오심에 초점을 맞추어 성경적으로 재조명하여 다듬어서 참된 의미를 되새긴다면 성탄절은 의미 있는 절기가 될 것이다.

첫째, 성탄절은 오실 메시야에 대한 기다림의 성취였지만, 그 이후의 성탄절은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그리스도의 탄생 의미를 되새기는 축제이다. 따라서 크리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면 구약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 누가복음에 보면 성탄의 의미를 몇 가지로 보여주고 있다. 첫번째는 목자들에게 주어졌던 성탄메세지이다(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 두번째는 동방박사들에게 찾아온 성탄의 메시지이다(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이에 대한 기다림의 성취). 세번째는 시므온과 안나가 고백한 성탄 메시지이다(아담 이후 죄와 고통에 시달리던 인류에게 주는 평화와 위로의 메시지). 우리들에게 성탄절은 구속을 되새기고, 그 의미를 기억하는 날이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오랜 기다림이 성취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바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방 박사들이나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께로(아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어린양 주님께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여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목자와 동방박사,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증거했다. 몇천 년을 기다렸던 위로와 소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거. 성탄절은 특별히 전도가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성탄절에는 교회 내의 행사 준비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복된 날이 되었으면 한다. 특히, 정말 복되게 들리는 곳에 전해야 한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왕궁에 가장 먼저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소외된 목자들에게 왔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교회의 성탄절 문화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정말 기독교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이 오셨다'는 말을 전해주는 모습이어야 한다. 성탄절은 여전히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계기이다. 세상의 상업화된 성탄절 문화에 대해서 교회가 무조건 비판하기보다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진정한 성탄절을 알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서 보여주어야 한다. 성탄절은 사회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가족이 함께 하는 뜻 깊은 성탄절

1. 자녀들과 함께 비신자 가족이나 친지, 친구에게 선물할 성탄절 카드를 만들어보자. 요즘엔 기독교의 신앙이나 성탄의 의미를 담은 성탄절 카드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성탄의 의미가 듬뿍 들어있는 '우리가족표 성탄카드'를 정성껏 만들어 보내면 받는 사람도 무척 기뻐할 것이다. 자녀들에게도 성탄의 의미를 설명해주며 카드에 '메리 크리스마스', '축 성탄' 같은 상투적이고 애매한 메시지 대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메시지를 적어 보자.

2. 성탄절에 많이 불리는 캐롤 중에 성탄절과 관계없는 노래들을 찾아내는 게임을 해보자. 예를 들면, 루돌프 사슴코, 실버벨, 산타클로스, 북치는 소년, 화이트 크리스마스 등 가사에 성탄의 의미를 전혀 담고 있지 않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성탄의 의미가 잘 부각된 찬양가사를 음미하며 노래하다보면 성탄절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3.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말구유에 태어난 성탄의 주인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기회를 가져보자.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성탄절은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의 뜻이기도 하다. 요즘은 성탄절에 선물을 받고 싶어 안달을 한다. 그러나 이제 성탄절이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닌 어려운 이웃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는 날로 바뀌면 좋겠다.

4. 자녀들과 함께 성탄의 의미를 깊이 나누며 감사의 일들을 기록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리고 연말연시와 겹쳐 있는 성탄절에 새해의 계획을 세우며 기도제목을 가족들이 머리를 맞대고 작성하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5. 성탄절 전야에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가정예배를 드리자.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가슴 떨리는 순간을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또한 가정예배 후 위에 제시한 방법들을 모두 활용할 수도 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탄절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분명히 각인시켜 주는 멋진 계기가 될 것이다. (글 · 편집부)

성시화운동을 실현하는 춘천홀리클럽

♣임 원
회 장 : 이학규 장로
부회장 : 허종구 장로, 임윤식 장로, 황병호 장로, 이영식 장로, 김종열 장로, 한병수 장로, 김용배 장로, 김영명 장로, 차예자 장로
사무국장 : 김영관 장로
서 기 : 이한준 장로, 부서기 : 최돈식 권사
회 계 : 이진배 장로, 부회계 : 홍재기 권사

♣운동방향
1. 기도운동(성령운동)
2. 미신우상타파운동
3. 가정회복운동
4. 청소년선도운동
5. 환경보존운동
6. 근검저축운동
7. 공중도덕준수운동
8. 퇴폐풍조추방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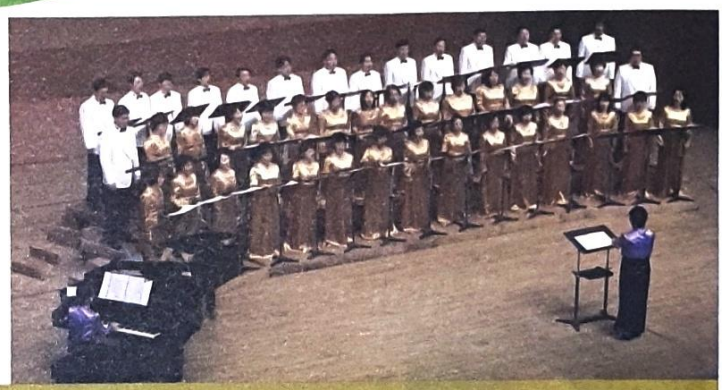
♣중점사업
1. 창립12주년 기념 선교대회 개최 (부흥회, 포럼, 문화행사)
2. 기도회 개최(순회예배)
3. 회지발간
4. 환경보존 캠페인
5. 성시합창단 활동 지원
6. 언론인 선교회 조직
7. 법조인 선교회 조직
8. 학원선교단체협의회 조직
9. 군부대 합동세례식 지원

※ 성시합창단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화운동을 열방에 전하는 하늘의 찬양!

※성시합창단 창립 1주년을 맞이하며
창단지도위원 이학규 회장과 민성숙 지휘자와의 인터뷰



성시합창단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이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찌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찌어다(시편98:1-4)"

1972년 춘천에서 성시화운동이 시작된 이후, 성시화운동은 기도와 말씀, 전도와 선교운동으로 꾸준히 발전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 21세기는 도시선교와 총체적 변혁선교가 주도해 나아갈 것이다. 성시화운동은 21세기 도시선교와 총체적 변혁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세기가 될 것이다. 성시화운동은 춘천과 한반도라는 영토를 넘어 열방을 향한 그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성시화운동을 열방에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를 마련하셨다. 하늘의 찬양으로 열방에 성시화운동을 전하고자 소망하는 <성시합창단>의 아름다운 비전을 들어보자.

성시합창단을 창립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이학규 장로(홀리클럽회장, 석사교회)

오래전에 춘천을 대표하는 "은하수합창단"이 있었다. 단원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서 춘천의 기독교를 대표하여 '캠페이지(미군부대)'를 비롯해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였다. 1995년도에는 "장로연합찬양단"이 창립되어 찬양으로 선교활동을 하면서 성시화운동이 확산되는데 협력하였다. 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춘천의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합창단이 있었으면 하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였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대양 정세환 회장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셨다. 성시합창단의 비전을 나누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던 중 평소에 악기연주와 찬양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정회장님께서 쾌히 단장으로 섬겨주시기로 하셨다. 기도하면서 홀리클럽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그리고 기독교연합회의 임원들에게 취지를 설명드리고 기도와 협력을 구했다. 당시 박상호 목사님께서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시고 계셨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셨다. 그래서 회장님 이름으로 단원모집과 창단공문을 교회에 보내 협력을 구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에 창립하여 올해 제1회 찬양발표회를 가졌다. 성시합창단은 교파를 초월하여 춘천을 대표하는 찬양선교단으로 성시화운동을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창립된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민성숙 집사(성시합창단 지휘자, 성암교회)



평소에 교회찬양과 찬양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찬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였다. 그러던 중 성시기도모임에서 이학규 장로님을 만나 성시합창단에 대한 비전을 듣고, 나와 같은 꿈을 가진 분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구나 생각했다. 그 후 이학규 장로님을 만날 때마다 성시합창단에 관한 비전을 나누면서 진행과정을 여쭈었다.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헌신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지난 1년 동안 성시합창단을 섬기면서 성시합창단이 창립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감사할 따름이다.

현재 성시합창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기억에 남는 일화는?

※민 성 숙

현재 합창단은 매주 월요일 저녁 석사교회에서 모여 연습을 하고 있다. 석사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연습하는 단원들을 위해 저녁 늦게 까지 장소를 제공해주시고, 자동차와 성가대가운도 아낌없이 사용하도록 해주셔서 불편함이 없이 연습하고 있다. 현재 70여명의 단원들이 등록되어 있고 40여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활동하고 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단원들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

성시합창단이 춘천을 대표하는 기독교계의 성시선교합창단으로 자리매김을 하기까지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 기억에 남는 일은 제1회 연합 찬양축제이다. 춘천시에서 기독교 이름으로 활동하는 합창단들이 협력하여 찬양축제를 준비하였다.

기독합창단간에 친교를 도모하고 조성된 기금은 전액 불우한 이웃을 돕는 후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찬양축제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다. 단원들 중에는 그동안의 노력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실망하고 교회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토로하기도 했었다. 지휘자로서 이때가 가장 마음 아팠다. 낙심하여 불평하는 단원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받으신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첫 번째 시작은 미약할 수 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자" 이 일로 다시 한 번 성시합창단이 왜 존재하는지를 깊이 생각했다. 성시합창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이 일을 할 수 없다.



앞으로의 성시합창단의 일정과 비전은 무엇인가?

※민 성 숙

성시합창단은 춘천을 대표하는 기독교계 합창단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춘천의 교회를 섬기고 춘천의 복음화와 성시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그리고 춘천기독교연합회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2008년도에는 성시화운동의 일환으로 '홀리미션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인도에서 신학교 총장님이 오셔서 공연을 보고 감동을 받으셔서 성시합창단이 인도에 와서 공연해 주기를 부탁하셨다. 이학규 장로님과 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성시합창단을 통해 성시화운동의 해외확산을 원하신다는 강한 확신을 주셨다. 성시합창단은 해외 성시화운동의 중심그룹들과 네크워크 형성을 비전으로 해외 홀리미션투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작년에 일본의 글로리아 합창단이 춘천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답례차원에서 일본을 답방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보류 중에 있다. 현재 기도하면서 인도와 일본, 인도네시아 등의 성시화그룹과 연락을 취하며 의논 중이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춘천의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학 규

현재 성시합창단은 많은 교회와 목사님, 장로님들의 기도와 협력을 통하여 잘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직 1년밖에 안된 갓난아이와도 같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현재 12개 교회(광장 · 늘사랑 · 동부 · 석사 · 성암 · 소양제일 · 신성 · 온누리 · 주향 · 중앙감리 · 제일감리 등)의 성도들이 단원들로 참여하고 있다.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해 주셔서 성시합창단이 교단을 초월한 춘천을 대표하는 기독교계의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다. 재정적으로도 많은 후원이 필요하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주)대양 정세환 회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많은 격려와 후원으로 성시합창단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모쪼록 더 많은 기독교기업들이 기독교사역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홀리클럽의 임원들과 성시본부 그리고 기독교연합회임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

[취재 정재호, 사진 김미경]



정 세 환 회장
[춘천성시합창단 단장]

성시합창단 2008년도 행사일정

- ○합창단 연습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석사교회
- ○기독교연합회 신년교례회 및 연합행사 참여
- ○년1회 정기공연 ○가을 제2회 찬양축제
- ○부활절 새벽예배 성가찬양
- ○크리스마스 성탄트리 점등식
- ○년1회 홀리미션투어 계획

※ 성시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민 성 숙 010-304-5469
임 창 수 010-6383-8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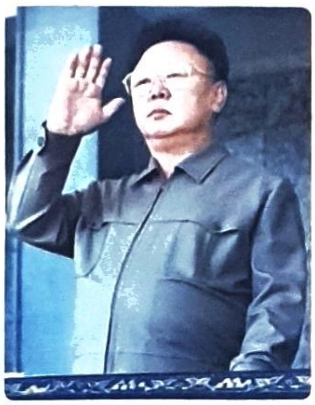
선 교

통일은 십자가다!

"북한동포의 아픔을 우리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여야"



조 인 형 명예교수
(강원대 역사교육학과/통일나눔터)



제2차 세계대전 후 국토가 분단되었다가 통일된 베트남 · 독일 · 예멘의 통일사를 보면, 피 흘리는 전쟁을 통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통일되었다.

그러나 분단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남북한이 어느 한쪽에서 무력을 통해서 흡수통일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무모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상호 막대한 피해를 당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것은 1950년 6 · 25 전쟁을 통해서 남북한이 깨달은 값비싼 교훈이다. 그러므로 우리민족이 평화적 방법을 통해서 통일해야 할 것은 필연적 방향이다.

그러면 평화통일은 우리들이 부르짖는다고 과연 거저 굴러올 것인가? 그런 생각과 주장은 비현실적 이상이다. 현재 남북한의 경제 격차는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남북한 총 경제력의 격차는 삼십분의 일 정도라고 한다. 이러한 북한의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서 북한 국민의 건강 상태는 정상이 아니다. 예컨대, 남한 국민에 비해 북한 국민의 평균 수명이 10살 정도 단명한 상태이며, 북한 청소년의 키는 남한 청소년에 비해 15cm 가량 작고, 체중도 10kg 정도 적다. 또한 북한의 요덕 수용소 등 여러 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20여만 명에게 공급되는 식량 사정이 너무나 열악하여, 수감자들의 머리털이 거의 빠져 있고, 지금도 1년에 영양 부족으로 인해 4만여 명의 북한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통일 이전 단계에서 남한 사람들이 해야 일은 무엇인가? 단적으로 말하면, 남한 사람들이 북한 정권의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그것을 개혁하도록 촉구해야 하겠지만,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는 상생과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념과 체제를 넘어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눔의 정신을 발휘해야 마땅할 것이다.

어떤 남한 사람들 중에는 북한이 자기식대로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으니, 그냥 놓아두고 보자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 사람들 자신이 정치를 잘못해서 오늘날 그렇게 못살게 된 것을, 남한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남한 사람들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 1945년 8 · 15해방 전에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주할 때, 소련군이 남한 지역에 진주하고 미군이 북한 지역에 진주했더라면, 아마도 오늘날 남북한의 상황은 역전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북한 동포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북한 주민들에게 죄가 있다면, 그들이 북한 지역에 태어난 죄밖에 없다. 그들은 공산 이데올로기에 희생당하고 있는 체제의 희생양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과는 분리하여 생각해야 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남한 국민들 중에는 북한이 6 · 25전쟁을 일으켜 남한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원수 같은 사람들을 남한 사람들이 도와주어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6 · 25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날 북한이 남한을 해방시킨다는 구실 하에 6 · 25전쟁을 일으켜 피해를 끼친 원인 제공자들에 대해서는 반성을 촉구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성서 말씀의 시각에서, 우리들은 민족의 아픈 상처에만 머무르지 말고 미래 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북한 동포의 아픔을 우리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여야 하겠다. 이것은 우리들이 이 시대에 짊어져야 할 피할 수 없는 십자가이다.

남한 국민들 중에는 남한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면 그 혜택이 북한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그것을 군사비로 전용하는 등 악용하여 부메랑이 되어 남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북한에게 절대로 경제적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국민들도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그는 고난의 십자가를 졌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은 실패자가 되었지만, 아가페적 사랑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는 최후의 승자가 되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어떤 것은 자갈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지는 것도 있다. 그렇게 씨를 뿌리다 보면, 옥토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남한 국민들은 지난날의 민족의 아픈 상처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념에 포로 된 북한 체제의 희생양들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통일을 하지 않고 그냥 떨어져 살려고 한다면 몰라도, 분단된 민족을 하나의 통일국가로 이룩하려고 한다면, 북한 동포들의 오늘의 고통을 외면하고서는 결코 바람직한 민족통일을 창출해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조국통일 해방전쟁이라는 구실 하에 6 · 25전쟁을 일으켜 수백만 명의 겨레들을 희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천만 이산가족들을 아기 시킨 원인 제공자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또한 오늘날 탈 이념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60년이 넘도록 사회주의 이념만을 온전한 진리처럼 고집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배타적 독선론자들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다. 하지만 오늘 이 민족이 풍랑만난 것은 나의 연고로다 하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던 요나 선지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바람직한 민족통일은 결코 거저 굴러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자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랑으로 통일의 십자가를 지자!



희망을 주는 곳! 사랑이 피어나는 곳!

신협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 공과금납부 · 자동이체 · 예금상담 · 대출상담
푼돈도 맡겨주시면,
정성껏 관리하겠습니다.
운교본점: 255-1007
(1층신협, 3층기독교연합회, 4층CBS방송)
강남지점: 261-1002 (퇴계 현진에버빌 2차 옆)
춘천와이신협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 권 승 갑 장로 (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인도 친베리아에 맺힌 풍성한 열매 - 광염미션스쿨

우리가 인도 땅 친베리아에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CCF교회들이 모여 연합 활동을 하는 등안에 선교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춘천 출신의 인도 이영길선교사를 자연스럽게 만나 연결되었다. 이 선교사는 선교사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인도 북부의 비하르주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주된 사역은 문맹퇴치, 여성자조, 쓰레기정화운동이었다. 우리는 단지 NGO사역만 가지고는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문맹퇴치학교 사역을 통하여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을 연구 검토한 결과 큰 경비를 들이지 않고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장소는 동네의 마을 회관을 사용하고 월 5만원 정도면 문맹퇴치학교 교사의 봉급과 아이들의 학용품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역은 한 동네에 문맹퇴치학교를 운영하여 70%에 달하는 인도의 문맹을 해소해 줄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일학교를 운영하여 교회의 초석을 세우고, 그 부모들에게 여성 자조그룹을 운영하여 가난문제의 해결을 도움으로써 그들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여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자는 야심찬 목표였다. 그래서 CCF 12교회(갈릴리,광염,거성,나눔,늘사랑,사암,은혜,열린,예광,춘천그리스도,평안,효자)는 각자 도시를 할당받아 선교구역을 맡았다. 그래서 약 60개의 문맹퇴치학교를 운영하여 이를 통한 교회개척선교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 광염교회는 인도 비하르주 중에서 자무이군의 친베리아 리에 해당되는 아주 척박한 지역을 맡았다. 가장 가난하고 불가촉천민이 모여 사는 가장 험악한 곳이었다. 우리는 매월 백만원이 넘는 선교비를 보냈고, 매년 청·장년들이 찾아가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위로 격려하였다. 그래서 주일학교도 만들어졌고, 친베리아에서 운영되는 문맹퇴치학교 아이들만 600명이 넘었다.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어 아이들의 삶까지 달라졌고 동네 사람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이제는 문맹퇴치학교가 아니라 어엿한 초등학교이다. 우리는 초등학교 1-10학년 교과과정을 실시하게 되었고, 지금은 10학년까지 운영하고 있다(10학년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

그러는 가운데 그 척박한 동네 출신의 한 정치인이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가나안농군학교를 인도에 접합하여 선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3년 전 가나안농군학교 김범일 장로와 동반 인도를 방문하였다. 우리를 맞으려고 마을사람들이 3,000여 명이나 모여 대 장관을 이뤘다. 장관이 환영 연설을 하면서 "불교든 기독교든 관계없다. 우리를 잘살게만 해다오!" 아주 충격적인 요청이 아닐 수 없었다. 비상이 걸렸다. 초등학교라고 해야 나무 그늘 밑에서 햇빛과 비만 피한채로 땅바닥에 앉아서 하는 교육시설인데 이것 가지고는 제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 없었다. 그래서 등 떠밀리듯 중고등학교 미션스쿨을 세우자는 야무진 꿈을 세웠다.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여 비하르와 인도전역에 파송하자는 것이다. 이에 착수하여 오늘의 <친베리아 광염미션스쿨>이 지어지게 된 것이다. 교인 가운데 건축과 관련된 설계사를 비롯한 시공팀이 수차례 인도 친베리아를 방문하여 불가를 조사하고 건축 상황을 체크 설계하였고, 인도의 시공업자를 물색하던 중 신뢰도가 떨어져 결국 직영하여 8천만 원의 총 공사비를 투입하여 건축을 완공하게 되었다.

이기에 우리가 소원하던 교회개척 사역이 문맹퇴치학교 활성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문맹퇴치학교 교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 질병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이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를 부으셔서 이제 장년 교우 150명이 회집하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겨로 2-3년 만의 일이었다.

오늘 11월 25일 봉헌에 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꿈꾸던 꿈이 현실로 열매 맺는 감동적인 순간을 맞게 된 것이다. 한때, 공산당들의 방해와 어려움이 많았지만 마귀는 승리할 수 없음은 이미 정해진 것 아닌가?

이제 우리의 꿈은 더욱더 힘차게 전진하게 되었다. 문맹퇴치가 초등학교가 되더니 초등학교가 변하여 광염미션스쿨이 되었다. 이제는 전문대학을 꿈꾼다. 여기에 가나안농군학교를 꿈꾸고 있다. 인도의 3대 문제는 가난과 쓰레기 그리고 카스트제도이다. 카스트제도는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나 가난과 더러움은 가나안 농군학교를 통해서 인도를 깨울 수 있는 희망이 있다. 광염미션스쿨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가나안농군학교를 통하여 가난과 쓰레기를 비롯한 부정직, 도둑질 등 믿음 없는 나라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앞으로의 꿈이다.

우리는 11월 25일 친베리아 '광염미션스쿨'과 '광염교회'를 봉헌하면서 기념식수(망고)를 심었다. 나무를 심으며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였다. "하나님 이 망고나무를 염소가 먹지 않게 하옵소서. 잘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참 엉뚱한 기도라고 여겨질지 모르나 우리의 심정은 간절했다. 마을 어디를 보아도 유실수가 없기에 이 나무는 바로 상징인 것이다. "주님 이 망고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듯이 이 학교를 통해 배출되는 이들이 인도 최고대학인 네루대학에도 가게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친 인재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광염미션스쿨을 통해 배출된 목회자들이 다시금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개척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이들의 마음이 청결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으로 마음 모아 주님께 기도하며 아쉬지만 친베리아 광염미션스쿨의 정문을 뒤로하였다.

이어서 나눔교회 피종호 목사와 이웃의 열정적으로 문맹퇴치학교가 열리고 있는 벨라 마을을 방문하였다. 벨라는 친베리아를 보고 감동받아 그 마을 지도자가 500여 평의 땅을 기증하고 우리를 초청한 것이다. 우리는 미션스쿨과 교회가 또 다시 CCF교회들을 통하여 각 도시마다 세우기를 꿈꾸었던 그 꿈이 실현되는 현장에서 감동하게 되었다. 또한 빈틈리 마을은 비하르주의 수도인 파트나에 있는데 정부의 이주 정책으로 이름 그대로 빈털터리로 쫓겨 나게 된 가난한 마을이다. 이 마을을 품은 효자교회(김종호목사)는 500만원의 씨앗머니를 내 편에 부탁하여 전달하였다. 자! 효자와 나눔을 이어 또 다른 교회들이 선한 일에 줄이어 참여하게 될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다.

2007년 11월 25일 인도 친베리아 광염미션스쿨에서
춘천광염교회 박인관 목사 드림

www.seeds21.co.kr
컴퓨터로 만들어 가는 세상
Microsoft Office Specialist Authorized Testing Center
MOS 공식 시험센터
MOS 지정 교육기관
MOS /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 사무자동화기사
컴퓨터활용능력 / 워드프로세서 / OA과정
웹디자인 / 그래픽디자인 / 동영상편집
홈페이지 제작
SCI 씨앗컴퓨터학원
☎ 033) 252-0179 춘천시 후평3동 891-11 (동아목욕탕 3층)



크렌셔 크리스천 센터 교회(Crenshaw Christian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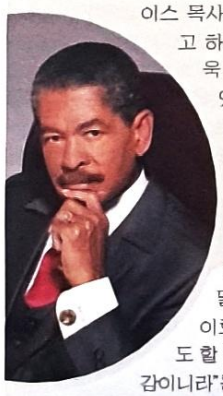
로스엔젤레스 시 한인 타운의 남쪽에 위치한 "크렌셔 크리스천 센터"교회는 미 서부지역에서는 가장 큰 흑인교회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흑인들만 출석하는 교회라기보다는 여러 인종이 회중으로 있는 교회로서 교회가 위치한 곳이 흑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커뮤니티이기에 그렇게 알려져 있다. 1973년 담임목사인 프라이스(Dr. Fredrick K. Price)와 300여명의 교인들로 시작된 크렌셔 크리스천 센터는 믿음의 행진으로 오늘날 22,000여명이 출석하는 대교회로 성장해왔다.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프라이스 목사의 목회철학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발걸음을 삶의 방법으로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세계의 교회탐방Ⅲ 크렌셔 크리스천 센터 교회 편입니다.

프라이스 목사와 교회의 시작

이 교회의 담임목사인 프라이스 목사는 1932년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나 흘곧 L.A.지역에서 자라온 토박이이다. 종교와 별 관계없이 자라던 그는 고등학교 때 만난 여자 친구 베티(Betty)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하였고, 때마침 그 지역에 열렸던 텐트 부흥회에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다. 그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목회자로서 사역을 시작한지 첫 17년 동안 프라이스 목사에게는 무언가 만족할 수 없는 답답함 가운데 4군데의 교단을 옮겨 다니며 다양한 목회를 시도했으나 해결할 수 없는 숙제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1962년에는 큰 아들(당시 8살)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차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생기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프라이스 목사에게는 큰 아픔이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더욱 간절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프라이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자신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목회사역에 성령님의 능력이 빠져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를 읽을 때 큰 영감을 받았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 보다 큰 것도"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그의 사역은 큰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처유의 큰 역사까지 일어났다. 1984에는 늘어나는 성도들의 숫자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게 되자 지금의 페이스 돔(Faith Dome)을 건축하게 되었다. 이 페이스 돔은 미국 내에서도 가장 큰 교회 건물 중에 하나가 되었다.











교회의 사역

이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는 저소득층의 흑인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으로 마약과 갱 관련 사고가 연일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주변 환경 가운데 교회는 성공과 축복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면 삶이 변화되고 존경과 명예를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가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가난한 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사역도 펼치고 있는데 첫째는 구제사역이다. 매일 열려 있는 구제사역 건물에는 낮 시간이면 누구든지 와서 필요한 음식을 얻을 수 있다. 하루치의 음식이 아닌, 일주일 분량의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며 3번까지는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고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나눔 사역이 있다. 특별히 의류품들을 나누는 사역을 하는데 교인들이 집에서 입지 않는 옷들을 모아오거나 의류판매업체들이 재고품을 헌물 하는 것들을 모아 종류와 크기별로 잘 분리하고 하나하나 옷걸이에 걸어서 한 건물에 놓게 된다. 이 방에 들어가면 마치 작은 옷 가게에 들어온 기분이 느껴질 정도로 잘 정리되어 있으며 신발들도 운동화부터 구두까지, 옷도 속옷에서부터 양복까지 잘 갖추어져 있고 누구나 와서 마음에 드는 옷과 신발을 한 세트로 골라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맺음말

주일 오전 9시, 이 교회에는 수많은 차량이 줄을 이어 주차장으로 들어온다. 10,000여명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돔(Dome)안으로 성도들이 들어올 때면 참석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정장 차림이다. 밝은 색의 옷들과 화려한 장식이 있는 모자, "멋진 신사, 숙녀가 여기 다 모였구나!"하는 감탄사가 나올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한다. 교회 주변에서 오는 교인들이 대부분 평소에는 사무직 직장인들이 아닌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주민들이지만 주일만큼은 자신들이 갖출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신분이 하늘에 소속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이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편집 부]



자연유치원은 귀한 자녀의 첫 학교입니다.

유아학교
SINCE 1993
JAYEONKINDERGARTEN
고육인적자원부

2008년도 신입 원아모집
★ 입학연령 : 2002. 3. 1~ 2005. 2. 29
★ 특 전 : 개척교회목회자자녀교육비 전액감면
★ 문 의 : www.cyworld.com/jysince93
☎ 241-5511 / 5522
jysince93@hanmail.net





원장 이관형
1993년 은광유치원 개원
(현, 자연유치원)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한림성심대학교 유아교육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미술치료사, 독서치료사, 아동청소년 상담사, 유아체육지도자, 스피치지도자

(부설)인성미술치료진단연구소/ 신바탐길거리웅변교육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 22:6)

설 교

| 영혼의 양식

성탄과 그리스도

"구원의 빛이 임한 평화의 날"



이 영 렬 목사
[한사랑춘천교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마1:21)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눅2:10-14)

성탄절은 친구(이성친구 포함)와의 만남, TV의 특별 프로그램 등의 소식으로 기쁜 날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흑암에 메여 있는 인류에게 구원의 빛이 임했다는 소식으로 기쁜 날이다.

성탄절은 친구를 드디어 만나서, 특별한 영화를 보아서 평화로운 날이 아니라 기쁨으로 구주 예수를 영접해서, 영혼이 주님이 주신 평화로 평화로운 날이다.

성탄절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나타나 선물을 주시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를 영생의 선물로 주신 날이다.

성탄절은 캐롤송을 듣고 부르는 날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그리고 구원의 예수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날이다.

성탄절은 친구들이 모여 술을 마시며 여흥을 즐기는 날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마시며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는 날이다.

다시 말해, 성탄의 핵심은 친구들 만나기(이성친구 포함),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캐롤송, 슬파티...가 아니라 성탄의 핵심은 구주 예수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영접 그리고 구주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온전한 성탄도 아닌 세상의 12월 25일의 기쁨은 하루면 지나가고 아쉽게도 다시 다음해를 기다려야하지만 기쁨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높이고 찬양드리는 믿는 자들의 12월 25일은 구주 예수 안에서 영원한 것이니... 이래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자의 축복은 세상과 족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2007년 12월 25일 성탄절!
구원의 주 예수여 모든 영광 받으소서.

| 사색의 창

2007 춘천 아버지학교 가족 초청 한마당 축제를 준비하면서...

한해를 지나면서 감사한 것은 두란노 아버지학교를 졸업하고 또한 춘천에 아버지학교가 중요한 운동이 되어 사회와 교회의 영적 변화의 주역이 되었다는 것이다. 본 지면을 통해 아버지 학교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아버지학교는 1995년 10월 두란노 서원에서 처음 개설되어 2007년 12월말 현재 1480회 약 112,000명의 아버지가 수료하였다. 국내는 120개 지역에서 해외 39개국 83개 지역에 개설되어 있으며 강원도는 춘천지부를 비롯하여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원주, 정선, 철원, 태백, 횡성지역이 각 지부가 원활하게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가정의 문제이며 가정의 문제는 바로 아버지의 문제라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아버지의 회복을 통한 가정회복, 가정회복을 통한 사회의 변화가 이 땅을 축복하며 새롭게 하는 운동이라고 확신하며, 이에 은혜를 경험한 분들의 헌신으로 더욱 확장되어 가고있다.

아버지학교의 활동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매년 두 번의 전국적인 수료자 가족 모임 행사가 있다. 매년 초 둘째 토요일에 서울 양재동 횃불회관에서 전국 수료자 가족들이 모여서 다함께 '비전 나이트'라는 행사를 가지고 있으며 여름에는 '가족한마당'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별로도 매년 '가족 초청 한마당 큰 축제'를 열어 그 지역 가족들의 단합과 동참하지 못했던 아버지들의 모임을 위한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감사하게도 군인 각 관공서, 각 기업체, 교도소, 학원, 해외현지인을 통한 아버지학교로까지 놀랍게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 특수한 계층으로 누구나 들어가기가 아주 어려웠던 곳들도 아버지학교는 실제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루면서 전도 선교적 차원에서도 큰 열매를 맺고 있다.

이 학교는 장차 이 땅의 아버지와 남성,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킬 삶의 실천운동, 새로운 사회운동(Movement)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아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낮 익은 구호를 외치며 스스로 변화를 먼저 경험한 아버지들은 오늘도 변화의 선봉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 2005년부터는 순결운동을 통한 거룩한 부흥운동을 펼치며 더 큰 도전을 하고 있다. 이에 춘천 아버지학교는 12월 15일[토] 오후 5시 후평동 신성감리교회에서 춘천권역(춘천, 홍천, 화천, 양구지역) 아버지학교 수료자와 관심있는 아버지들과 가족을 초청하여 '가족한마당 축제'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초청가수로 사월과 오월 이승재 목사님을 모시고 다양하고 알찬 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한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하며, 이 여동적 생명잔치의 자리에 모두를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아버지 학교 임원일동]

| 독자 투고

사색의 창은 독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곳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성명 연락처 첨부)
참여방법 : hc1260@hanmail.net(기사투고) T.256-1260-1 F. 033)257-1260





선교적 사명으로 부르신 가정



정대교 · 한혜영 부부(갈릴리교회 집사) 편





하나님이 창설하신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 가정과 공생관계에 있는 교회도 사역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의 선교에로 부름을 받고 세워진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한다. 현재 태권도와 워십을 통해 세계 선교의 꿈을 키우고 있는 정대교 한혜영 집사 가정이 그들이다.

선교의 비전을 키우며

두 사람은 결혼 전에 선교에 비전을 가진 배우자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만나 선교를 위한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허락하셨다. 남편 정대교 집사는 청년시절 찬양과 경배, 태권도선교회, OMF 등에서 전문인 선교사 훈련을 이수하였다. 아내 한혜영 집사는 고2 때 어머니를 따라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워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저분처럼 워십 찬양을 하고 싶어요'라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워십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 수준에까지 이르게 하셨다. 지금 두 사람에게는 두 살 된 아들이 있고, 두 사람 모두 직장생활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개인을 쓰시든지 가정을 쓰실 때 먼저 준비시키신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능이 준비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거의 매일 잠든 아이를 들쳐 업고 새벽기도에 나온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도한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바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해외 및 지역사회를 선교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다.

가정을 통한 아름다운 사역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고 계신다. 지난해에는 필리핀 단기선교팀을 통해 가정을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정대교 집사가 아이들을 훈련시켜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이어서 한혜영 집사는 워십을 통해 찬양을 드릴 때, 가는 곳마다 수많은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이 몰려들게 되었고, 복음을 전파하는 훌륭한 통로가 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가정이 선교를 위해 드려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현재 정대교 집사는 <세계태권도 선교회>을 만들어 태권도를 통한 복음전파에 힘쓰고 있다. 또 아내 한혜영 집사는 춘천의 교회들 가운데 워십을 전파하려고 <새벽날개>라는 워십선교단을 만들어 이끌고 있다. 이들은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워십을 배우게 된다.

종종 결혼 전 싱글일 때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을 품어하던 사람들이 결혼을 한 후 비전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서로가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고, 서로 협력함이 없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 일 것이다. 이 부부에게도 그러한 문제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었다. 자녀 양육 때문에 오는 갈등도 그렇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면서도 사역 때문에 그 역할을 소홀히 할 때면 죄책감을 느끼기까지 한다고 한다. 모든 사역을 자비량으로 하다보면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집사 부부의 말을 들으며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가는 것은 믿음뿐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부부의 고민

앞으로, 이 부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보내실 때까지 현재 자리에서 맡겨진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다. 금번 12월 15에 열리는 "2007 기독무용 워십 선교축제"는 춘천도성에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워십을 통해 지역교회 가운데 찬양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워십 선교 축제에 춘천 도성의 성도들을 초청하고자 한다.

[취재 최영조, 사진 김미경]



예스비
에스비 브라운상가 이전 오픈

최고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
"당신을 20대의
아름다움으로 초대합니다."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3-2001
위치 브라운상가 프리머스 극장 입구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아름다운 멋


결혼예복 · 숙녀복 전문
패 · 션 · 리 · 더 제 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 시 뉴 욕 본 점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우리 곁에 있는 山 용화산


▲ 용화산 전경

춘천을 둘러싸고 있는 산 중에 북쪽에 위치한 산으로는 용화산이 가장 알려진 산이다. 그러나 춘천시내에서 산을 바라보기는 어렵다. 그래서인지 알려진 것만큼 그렇게 사랑받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행정적으로는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과 화천군 하남면, 간동면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춘천과 화천 양쪽으로 등산로가 개발되어 있다. 그런데 용화산의 산문은 남쪽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를 향하여 열려 있고, 중요한 바위 봉우리들 역시 고성리 쪽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춘천시민들은 용화산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가 하면 화천군민들은 해마다 '용화축전'을 개최하면서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용화산에서 사북면 고성리를 바라본 광경

용화산 개요

높이 875m이고, 주봉(主峰)은 만장봉이다. 이 산에서 지네와 뱀이 서로 싸우다 이긴 쪽이 용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 하여 '용화산'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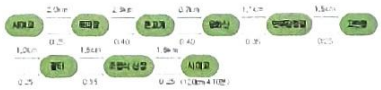
역사적인 면에서 용화산을 보면, 김부식의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고대국가인 맥국(貊國)의 중심지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맥국(貊國)은 용화산 주능선이 에워싸고 있고 산간분지여서 외적을 방어하기에 좋은 지금의 춘천 시가지에서 소양댐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신북읍 발산리에 도읍을 정하고 용화산과 삼악산에 성을 쌓고 그 영역이 양구, 인제, 화천, 홍천까지 뻗쳤다고 한다. 그리하여 용화산의 서북쪽 기슭에는 맥국의 옛 성터가 350m 가량 남아있다. 용화산을 중심으로 한 서쪽 지역에서 오봉산을 중심으로 한 동쪽 지역까지 이어지는 산릉은 자연의 방어선으로서 천혜의 이점이 있으므로 고대사회 이후로도 춘천 방어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공교롭게도 38선과 같은 위치에 있어서 6·25전에는 남·북한의 경계 역할을 했었다.

용화산에는 고개가 여럿 있다. 적이 쳐들어 올 때는 성문의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화천과 춘천을 오가는 민중들의 교통로였던 중요한 고개다. 즉, 서쪽의 부다리고개로부터 큰고개, 고탄령, 사여령, 배후령, 배치고개 등이 그것이다. 지금도 이 이름들은 용화산 등산코스에 나오는 중요한 지명들이다. 이처럼 용화산은 자연의 풍치가 아름답기도 하지만 역사적 사연이나 내력이 많이 얽혀 있는 유서 깊은 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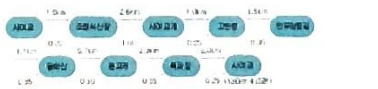
등산로



코스1



코스2





※ 코스 1과 2는 모두 춘천 사북면 고성리에서 출발하는 코스이다.

※ 위 코스에 나오는 큰고개는 등산로 입구에서 한 시간 정도 걸어가야 하지만 화천 쪽에서는 포장도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차로 바로 큰고개까지 갈 수 있다. 큰고개에서 40여분 만에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최단 코스이다.

※ 능선코스로 정상에서 배후령으로 연결되어 있다.

용화산의 매력

1. 만물상 같은 바위들

만장봉, 촛대바위, 하늘벽, 작은비선대, 입석대, 득남바위, 층계바위, 광바위, 새남바위, 주전자바위, 붙알바위, 마귀할멈바위, 바둑판바위, 장수바위 등 아기자기한 모습에서 전설을 품고 이름 붙여진 바위로부터 거대한 암벽에 이르기까지, 모양은 모양대로 크기는 크기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 소나무와 바위


▲ 하늘벽


▲ 입석대


▲ 촛대바위

2. 바위에서의 조망

용화산 정상에서의 조망은 나뭇잎에 가려서 그렇게 탁월한 편은 아니다. 요즘 같이 나뭇잎이 떨어지면 그나마 시야가 조금 열린다. 파로호와 춘천호를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입릉이 있어서 바위 위에서는 탁월한 조망이 가능하다. 발밑에 구름이라도 걸치면 하늘에 떠있는 듯한 황홀한 체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절벽 위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한다.


▲ 촛대 바위에서 본 조망


▲ 멀리 춘천시내가 보인다

3. 암벽등반

암벽등반이 가능할 정도로 거대한 암벽이다. 그러나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 듯.

※ 아쉬운 것은 바위는 많지만 정확하게 그 이름을 알기가 어렵다.


▲ 새님바위

주변안내 - 용화산 자연휴양림

춘천에서 28km 떨어져 있는 사북면 고성리 용화산 자락에 위치한 휴양림이다. 춘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휴양림이고 2006년에 개장을 했다.


▲ 용화산 자연휴양림

[편집위원 고 재 만]

세경볼링센타
매주 토요일 오후2시~3시30분 무료강습
단체 환영
대표 이 용 운 집사
(춘천온누리교회)
춘천시볼링협회 전무이사
위치 춘천시 석사동 694 세경상가(지하)
☎ 261-6184~5 / 011-9969-6702 cafe.daum.net/ccbowling

하나투어 HANATOUR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주말에 여행 알아보기 힘드셨죠?
여행 매니저와 상담하세요.
언제나 주말 고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EL: 244-1212 (하나투어)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NTOURS 이마트내 1층에 입점해 있습니다.
※ 고객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본 예술



〈세 박사의 경배 / 뒤러 1504. / 유화. 우피치 미술관〉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박사 셋이 모자를 벗어 들었다. 이들이 왕의 차림새를 걸치고 인생의 세 단계를 상징하게 될 것은 초기 중세 동방 교회의 전통이다. 유럽을 상징하는 나이든 카스파르가 황금을 바치고, 아시아의 젊은 왕 멜키오르와 아프리카의 발타사르가 제 순서를 기다린다. 청년과 장년, 노년의 세 단계에다 그 당시 유럽이 알고 있던 세 대륙의 우의적 의미를 보태어 백인, 황인, 흑인으로 인증을 세분한 것은 12세기 스페인 채색 필사본에서 가장 이른 사례를 볼 수 있다.
왕 중 왕 예수께 이 세상 모든 대륙의 전 인류가 영영 세세토록 경배해야 한다는 뜻이다. 뒤러는 그림 한목판에 서 있는 푸른 옷의 멜키오르에게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 두었다. 붓의 힘으로 성서의 기록을 되살리는 위대한 순간에 화가가 그림 속에 뛰어들어서 기적의 증인이 되었다.

[편집위원 이관형]

햇순 내리는 날의 기도

햇순이 내리는 거리가 아름답습니다.
노목이 벙이는 햇순을 보며
풍성함으로 가득 찬 세상과
가난함으로 성찬 난 또 다른 세상을 보았습니다.

말구유에 누이셨던 아기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리셨던 사랑이신 예수님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비천하신 두님이
올해는 햇순으로 내리셨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성탄절,
올해만큼은 기쁘고 감사한 크기만큼
어두운 곳에서 절망하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날이게 하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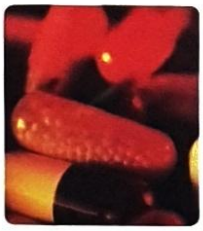
나를 구원하신 기쁨의 예식에만 참여하는 이기보다
버려진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햇순 내리는 아름다운 거리를 보며 기도합니다.
행함 있는 모든 살아있는 믿음들이
온 세상 가득 순으로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詩 / 초록바람 한 인 순

| 건강상식

항생제의 사용원칙

강 석 태 원장 (강이비인후과)



항생제란 세균 감염에 의한 질병 치료 시 가장 유용한 약물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빈번히 접하게 되는 약들이다. 대표적인 것이 곰팡이균에서 추출한 '페니실린'으로 세균감염 질환치료에 획기적으로 공헌하였고 현대 사회에 있어서 항생제가 없다면 아마도 질병에 대한 재앙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항생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우며 의약분업을 추진한 정부는 의사들의 항생제 남용을 언론에 강조하며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세우면서 간과 한 것이 항생제의 오용에 대한 부분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항생제의 남용에 가장 영향을 끼친 요인 중의 하나는 약국에서 항생제를 팔거나 조제하던 시절 질병에 관계없이 혹은 무절제하게 "마이신"(본뜻은 스트렙토마이신 항생제를 지칭하는 말이나 일반적인 항생제의 대명사처럼 사용함)을 사먹던 사회적 관습이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된다.

의료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일부 편파적 언론보도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항생제 사용 자체가 나쁘다거나 항생제를 사용하는 의사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되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환자들을 대하다 보면 어떤 어머니들은 항생제가 몸에 나쁠까봐 하루 세 번 복용하는 것을 두 번만 복용시킨다던지, 너무 일찍 항생제 복용을 중단 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이다.

항생제 사용의 가장 큰 원칙은 충분한 양을 충분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다. 항생제는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복용하여 균을 죽일 수 있는 최소의 혈중농도를 항상 유지해주고 증세가 완전히 없어 진후에도 2-3일은 더 사용해야 한다. 증세가 호전되어도 체내에 균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항생제 사용을 중단하면 남아 있던 균들이 내성균으로 변하여 항균력이 더 강한 항생제나 다른 계열의 항생제를 사용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내성이 생길까봐 항생제 사용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항생제 내성은 항생제의 남용도 문제가 되지만 항생제의 사용이 꼭 필요한 질병에서 항생제의 오용 또한 내성균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므로 적절한 항생제 사용으로 독자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나눔과 기쁨 www.joyofsharing.org
사랑의 0.2% 나눔 희망세상 프로젝트

♣ '나눔과 기쁨'은
희생 봉사 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9일에 경성원 시단법인체로, 인간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선진국형 복지마을을 구현하고 시민사회에 앞장서고자 창립되었습니다.

♣ 인간사회안전 망이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동네가 하나 되어 '나눔공동체'를 구축하는 인간자원의 사회안전망운동입니다. 전국 읍면동의 지역활동기(나누미)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 '나눔공동체'를 조직하여 십시일반으로 후원금을 모아 정부의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멋어나있는 어려운 이웃을 지원합니다.

♣ 함께하는 사람들
상임대표: 최 성 규(순복음인천교회 담임), 손 봉 호(전 동덕여대총장), 서 경 석(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고 문: 김 준 곤(한국대학생선교회 총재), 이 세 중(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서 영 훈(신사회공동선언운동연합 상임대표)
공동대표: 홍 정 길(남서울은혜교회 담임), 옥 한 흠(국제제자훈련원장),
이 승 영(새벽교회 담임), 강 지 원(청지법률사무소 고문)

우리동네에서 나눔공동체가 시작됩니다.

♣ 개인후원안내
우리 동네 나눔공동체를 위해 후원해 주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수입의 0.2%를 나누어 주십시오. 후원해주시는 개인은 <나눔과기쁨>의 회원이 됩니다. ※원하시는 분은 CMS(자동이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 단체후원안내
우리 동네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나눔과기쁨> 업체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대·중소기업, 식당은 음식, 약국은 약을, 병원은 의료지원, 학교는 자원봉사, 각종사업장은 필요에 따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현금후원 이 아닌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계좌 안내
후원계좌 농협 301042-51-013893
예금주 (사)나눔과기쁨 춘천지부

※후원시 동사무소(자치행정기) 등 문의합니다.
성사를 위해서는 협동의 많은 노력 바랍니다.

춘천시 나누미우 귀 성 복사(사회복지사)
춘천시 후평동 745-9 정금교회
Tel 033)251-0675 / Fax 033)251-0675
H·P 017-370-0675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 때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젊은이들은 이 말에 실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부패하는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이라면(유10; 벧후2:12)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 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롬13:11-12상; 전12:1-7)라는 말씀에 동의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에(눅16:8) 연말에 자기의 생을 안락하게 살고자 갈무리를 하며 새해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엡1:17-19; 5:10,17; 롬12:1-2; 렙9:23-24). 그러므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지니, 너희 중에 누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워 보이거든 어리석은 자가 될지니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전3:18)는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해(딤전6:12) 자신을 살피며(고전11:28), 선한 것을 굳게 붙들고자 모든 것을 시험해 보는(살전5:21) 깨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냉철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현 세상에 살며, 그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신"(딛2:11-13)대로 기다리는 지혜로운 삶을 예비해야 합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하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엡4:26-27)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노도 끌날 때가 있어야 하는데 이 해가 지나가면서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면 어떨까요?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시길 바란다면 하물며 잘못한 일을 아직 회개하지 않은 완악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닥칠 진노를 네게 쌓아올리지"(롬2:5 말고, "네 형제가 너를 적대할 어떤 것이라도 생각나거든"(마5:23) 이 해가 가기 전에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이웃과도 있겠지만, 어쩌면 교회와 바로 나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더 있을 것입니다. 송년회로 이곳저곳으로 분주하게 보내기보다는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집안 사람들에게 화해하며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어떨까요?

구세군의 종소리가 울리네요.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심은, 고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약1:27) 역경을 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며(히13:3),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고(갈2:10) 우리의 머리를 들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기를(눅18:22) 우리를 깨우네요. 일어나 돌아보러 갑시다.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고전7:33-34), 세상을 사랑하는(요일2:15-17) 올가미에 스스로 걸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칫 우리의 계획과 상상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정말 금식과 기도에 자신을 드리는(고전7:5) 잠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입증되며 성취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롬8:26-27). 주님께로 나아가 보세요. 님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 참, 조국 교회가 많이 욕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딤전2:4-6) 어찌면 좋을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중재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떻게 하면 세상으로 알게 할까요(요17:18-23)? 이 해가 지나기 전 염려했으면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소서! 아멘.

[편집부]

예 향

레미제라블의 이야기

빅톨 위고는 "레미제라블"(장발장)의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빅톨 위고는 이미 20대부터 작가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생활은 그 명성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심한 알콜 중독 증세가 있었고, 가족들을 자주 괴롭혔고, 자녀들도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숨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40세가 되는 해 여름, 사랑하는 딸이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사건을 당합니다. 그는 딸의 죽음을 놓고 "이 비극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심판이다. 딸의 죽음은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딸의 죽음을 기점으로 빅톨 위고는 신앙을 회복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쓴 소설이 바로 유명한 "레미제라블"입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의 변화가 바로 빅톨 위고 자신의 자화상이라고들 말합니다.

[편집위원 최상도]

성시신문 새 이름을 공모합니다.

- 춘천성시신문의 새 이름을 공모합니다.
- 춘천성시신문이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하겠습니다. 춘천성시본부로 연락바랍니다.
- 당첨되신분께는 소정의선물을 드립니다.
- 문의: T. 033)256-1260~1
  F. 033)257-1260

성 시 만 평

이 관 형
jysince93@hanmail.net



성탄절의 주인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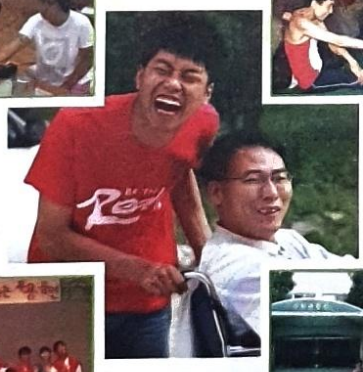
사랑하자! 배우자! 자활하자!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강원재활원은 춘천시 신북읍에 위치한 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1953년부터 전쟁고아를 위한 보육시설로 운영되어오다가 1954년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시설로 개원하여 20여 년간 사랑과 배움의 보금자리이며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재활원에는 88명의 지적장애인과 9명의 지체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이거나, 형편이 어려워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는 이들로 이곳에서 가족처럼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도와가며 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프로그램





강원재활원에는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훈련은 물론, 특수학교 위탁교육과 등아리 활동, 사회적응프로그램, 직업재활 등을 위해 38명의 직원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며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일과 수요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정기건강검진, 주1회 촉탁의 진료, 개별위생관리, 정기적인 원내 소독 등으로 질병발병률을 줄이고 있으며 물리치료, 운동치료, 비만관리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원 자원봉사 안내

강원재활원 가족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조그마한 나눔일지라도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내일을 꿈꾸는 희망이 됩니다.

개인, 학교, 기관 등 누구나 재활원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후원자, 자원봉사자와 만나 이웃이 되어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남강재단 강원재활원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천리 345-4
- 대표전화 : 033)242-1602 팩스 : 033)241-3201
- 후원문의 : 241-3181
- 자원봉사문의 : 241-3347



이달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리, 모사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리, 영존하시는 아버지리, 평강의 왕이리 일 것임이리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기관을 위해
지금까지 수고하며 땀 흘리신 모든 회장단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며, 새로 일할 신임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비전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 대통령선거를 위해
이달에 열릴 대통령선거를 통해 이 땅에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겐 희망을, 국가 간엔 신뢰를 줄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 강원도와 춘천의 성시화를 위해서
복음화를 통한 성시화의 큰 비전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려는 마음을 품고 함께 수고할 비전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 모든 교회의 부흥을 위해
춘천의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든든히 서가고, 지역의 변화를 위한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과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장 : 최영조
편집 위원 : 조영춘 최상도 정재호 이영규 권기찬 고재만 김춘배 이관형 김미경

원고투고 및 광고 문의
200-080 춘천성시신문사
춘천시 운교동 174-3 와이신협3층
E-mail : hc1260@hanmail.net
대표전화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010-7347-9004
010-3118-9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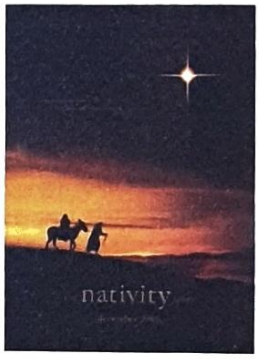
기독문화산책 — 영화이야기<6>

네티비티 스토리(The Nativity Story) - 위대한 탄생

<네티비티(nativity)>는 시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뜻한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그 특집으로 기독교에 관한 많은 영화들이 나오는데, 대개 산타클로스 같은 이교도적 아이콘으로 상업적 이미지를 내세운 내용들이 많다. TV에서도 특집영화로 골잡 그런 작품들을 올리기 일쑤다.

프랑코 제퍼렐리의 <나사렛 예수>나 영화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의 하나로 기록된 <벤허> 등도 자주 방영되는데 물론 영화 시작 장면에서 성탄과 어울리는 내용으로 출발을 한다. 다른 예수님의 전기 영화도 그런 전례를 기본적으로 밟고 있다.







그러나 동서고금 기독교인 뿐 아니라 모두가 널리 알고 있는 예수님 탄생을 주 모티브로 하여 그 전후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사건만을 고스란히 담은 영화는 드물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가장 성탄절에 알맞은 작품이 아닌가 한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인 셈인데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의 두려운 심리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어린 아내를 대하는 요셉의 갈등이 인간적으로 깊이 묘사되었다.

영화의 제작노트에 보면 2006년 12월에 전 세계에서 상영된 이 영화는 한 평범한 유대인 부부가 위대한 미션을 완성하기 위해 떠나는 신비로운 여행이야기를 그린 감동스러운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최초의 영화라고 한다. 비록 가톨릭 관점에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 개신교에서도 감동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영상이 매우 뛰어나고 연출과 연기도 섬세한 수작秀作이라 할 수 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쁨과 신비와 감동을 온전히 되살리고 음미하고 싶다면 이 영화 한편으로 충분히 충족될 듯싶다.

이 영화는 '케서린 헤드윅'이라는 여성감독의 작품이다. 건축을 전공하며 미술감독으로 많은 작품에 참여한 감각을 최대한 이끌어 아름답고 섬세한 영상을 만들어냈다. 출연진도 신선한데 마리아와 요셉 역을 맡은 배우들이 아주 선하고 따뜻하며 소박한 인상의 캐릭터를 창조해 내고 있다. 하늘에는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인 아기 예수님 탄생의 현장에 꿈꾸듯 다녀온 여운을 오래도록 남기는 것이다.

[편집위원 김춘배]

책 소 개

「천천히 깊이 읽는 독서법」



강준민 지음, 2007. 두란노.

이 책의 저자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강준민 목사이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많은 양을 읽는 다독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체우고 나아가 변화를 이루기 위해, 하나의 책이라도 깊이 읽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실제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많은 설교나 저술한 책은 그 독서법의 열매였다고 말한다. 그 중에 하나는 기글리오가 쓴 「기막히게 크신 하나님을 만나다」를 통해서 그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기글리오는 짧은 말씀을 선택해서 한 단어씩 묵상한다. 그의 묵상법은 성경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듣다가 특별히 집중하고 싶은 단어나 구절이 생길 때 ① 해당구절을 종이(수첩이나 메모지)에 적는다. ② 일정시간 지니고 다니며 시간이 날 때마다 읽는다. ③ 한 번에 한 단어씩 읽고 생각한다. ④ 단어의 뜻 너머에 있는 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집중한다. 시간이 얼마 걸리든 구애받지 않는다.

내가 실제 체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는 생각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시간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어떨 때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랄 때가 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공상이나 허망한 생각 속에 있을 때도 많다. 처음에는 묵상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생각이 늘 헤메고 마는 경우가 많다. 그 생각의 시간을 통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문제는 생각의 훈련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방법에 대하여 무지했기 때문이다.

저자나 그가 소개하는 기글리오의 방법은 묵상할 재료를 가지고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 단어나 짧은 글 속에서 놀라운 생각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마치 샘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그 단어나 짧은 문장을 통해서 자신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한다. 본서는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해주는 독서법이다. 효과적인 독서와 열매를 위해서라도 읽을 필요가 있다.

[편집위원 고재만]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301037-52-193771
Y신협 04073-13-016959
예금주 조영춘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11월 후원자 명단]

갈릴리교회	강촌감리교회	
강북성결교회	광영감리교회	
거성침례교회	나눔성결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니교회	
사랑성결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세인장로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광침례교회	예담장로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감리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사랑의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한빛장로교회	
춘천와이신협	천일현수막	
국민일보춘천지사	새민천주유소	
자연유치원	앤투어	
디티피아	쏘인테리어	
제시뉴욕	김길홍	김진삼
김현철	김영명	박동환
신성균	심인섭	안미애
안정숙	엄필남	오홍수
이용규	이원기	이원영
이판호	이학규	이병연
장기영	정찬복	조은제
최상호	최치광	최예석
한희현	황병찬	허순영
홍순복		

춘천기독교연합회 2007 회비 납부 교회

광영장로	광영감리	나눔성결
늘사랑장로	동부장로	동신장로
북부장로	새순성결	새춘천성결
석사감리	소양성결	소양제일성결
순복음제일	순복음춘천	시온성결
신사우동	온누리장로	중앙성결
춘천장로	춘천제일감리	춘천제일장로
평화감리	행복을전하는	춘천중부
와이신협	김혜경	홍요셉

2008년 평생교육원 신입생 모집 안내

◆ 기타과정

강좌명	교육기간및시간	비고
천연화장품,비누만들기강좌	매주화요일 오후3시	재료비 별도
성전(중·소교회)꽃꽂이	매주토요일 오후3시	
동양꽃꽂이	매주토요일 오후4시30분	
노래교실	예정	

◆ 자격증 과정

강좌명	교육기간및시간	수강료	수강
노인요양보호사	2008년 2월 개강예정		검정료 및 재료비 별도
심리상담사2급	16주(목, 오후6~9시)	35만원	
장례지도사2급	16주(금, 오후6~9시)	35만원	
미술치료사기본과정	12주(월, 오후6시30분)	20만원	

※ 한국미술치료학회 임상수련시간 인정과정,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미술치료기법
※ 교회학교 아동부 교사에게 유익한 프로그램
※ 소정의 과정을 필한 후 본원 미술치료사 자격증 취득가능(민간자격증)

■ 교육장소 : 인재한국 평생교육원 세미나실(춘천와이신협, 춘천기독교방송국 3층)
■ 문 의 처 : 본원 사무실 ☎033) 241-8801, 8802, 9939

인재한국 평생교육원
원장 김성호 / 부원장 권영식

알 림

감 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최 상 도 목사
사임교회, 본보 편집위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딤전4:7,8)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모파상이 쓴 <목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마틸드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지만 가난한 하급관리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녀가 꿈꾸는 삶은 청동 촛대에 촛불이 휘황한 실내에서 활활 타오르는 난로의 일기 때문에 좁음에 겨워 긴 의자에 기대어 자는…그러나 문부성에 근무하는 하급관리와 결혼한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초라한 집, 남루한 의자, 때 묻은 가구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무도회의 초청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는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뿐이었습니다. 무도회에 입고 나갈 드레스와 장식용 액세서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저축한 돈을 찾아 아내의 드레스를 샀습니다. 아내 마틸드는 부유한 친구를 찾아가 진주 목걸이를 빌려왔습니다. 드디어 무도회가 열리던 밤, 마틸드는 누구보다 아름답고 매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를 받았습니다. 파티를 끝내고 집에 돌아온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자 친구에게 빌려왔던 진주 목걸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진주 목걸이를 사기 위해 재산을 정리하고, 집을 담보로 많은 빚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진주 목걸이를 사서 돌려주었습니다. 그 후 이들 부부는 빚을 갚기 위해 10년이라는 세월을 고생해야 했습니다. 빚을 거의 갚게 되었을 때, 마틸드는 산책길에서 진주 목걸이의 주인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늙어버린 마틸드의 모습을 보고 부자 친구는 놀랍니다. 마틸드는 그제서야 지난 사연을 친구에게 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엾은 마틸드,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10년 전 너에게 빌려준 진주 목걸이는 싸구려 가짜 목걸이였는데…" 친구의 말을 들은 마틸드는 왈칵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10년의 헛된 고생이 너무나 뼈아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조용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열매를 거두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신없이 뛰어왔지만 세상을 추구하며 오지는 않았는가요? 허탄한 삶을 버리고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하지 않을까요?(딤전4:7-8)

❀ 알려드려요

◆ 어린이전도협회

1) 2008년 3일 클럽 어린이 전도자 훈련
일시: 1월 1일(화) 오후2시~5일(토) 오전11시 4박5일 숙박
장소: 본회 지정 훈련장 등록비: 15만원
대상: 교회학교 교사, 부장, 선교사후보생, 중2이상 전도 희망자
문의: 253-1443, 242-8291 (http://cafe.daum.net/cetch/)

◆ 예스컴

1) 목동모임(중고교 기독동아리 리더모임)
일시: 12월 8일(토) 중학교(오후1시), 고등학교(오후6시)
장소: 베드로선교센타 4층 예스컴 사무실

2) YES, COME PRAISE
"2007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예수님생일잔치"
일시: 12월 15일(토) 오후6시 장소: 강원대학교 실사구시관
대상: 모든 기독 청소년들

3) 14외 고3 영성훈련
일시: 2008년 1월 2일(수)~30일(수) 월-금 오전10:00~1:30
장소: 에덴장로교회 세미나실(운교로타리 대용빌딩2층)
단기선교: 2008년 2월 초 / 인도네시아
등록비: 50,000원(교재/간식비 포함)
프로그램: 조별큐티, 나눔/르마서 성경공부(길선희 대표간사)
특강: 선교/심리/창조과학/기초신앙훈련 등
등록 문의: 244-5400, 한승연 간사 010-3369-6994
(club.cyworld.com/yescomelove)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졸업생 파송예배
일시: 12월 7일(금) 장소: 춘천CCC회관

2) 금식수련회(강원지역)
일시: 12월 26일(수)~29일(토) 장소: 원주 명성수양관

3) 나사렛금식수련회
일시: 12월 31일(월)~1월 2일(수)
장소: 서울 부암동 CCC본부 문의: 254-5776

❀ CCC 어린이집 원아모집 문의: 010-9533-5776

◆ 예수전도단

1) 춘천 외복을 위한 와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춘천등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2) 영적성숙 세미나
일시: 12월 13일(목)~14일(금) 오후7시
장소: 석사감리교회 본당 회비: 무료(헌금 시간이 있음)
강사: 홍성건 목사(국제예수전도단(YWAM) 동아시아지역 책임자)
문의: 춘천지부 252-1128 (http://town.cyworld.com/ccywam)

◆ IVF

1) 정기총회
일시: 12월 8일(토) 오후5시 장소: 강원IVF 회관

2) 지방사역협의회
일시: 12월 10일(월)~12일(수)

3) 캠퍼스 수련회
❀강원대: 12월 19일(수)~21일(금) 장소: 원주명성수양관
❀한림대: 12월 19일(수)~21일(금) 장소: 강원 IVF 회관
❀교육대: 12월 3일(월)~5일(수) 장소: 미정
❀성심대: 12월 17일(월)~19일(수) 장소: 미정
문의: 252-5200

◆ JDM

1) 한국 간사회
일시: 11월 30일(금)~12월 1일(토) 장소: JDM훈련센터

2) 전체 중창예배
일시: 12월 6일(목) 장소: 온누리교회

3) 겨울집회 LTC
일시: 12월 7일(금)~8일(토) 장소: 춘천지구 회관

4) 2007겨울집회
일시: 12월 26일(수)~29일(토) 장소: JDM훈련센터
문의: 252-3192 / 010-9064-3192

◆ GBT성경번역선교회

1) 전국비전기도회
일시: 12월 3일(월) 오후7시 장소: 서울 삼광교회
말씀: 박민하 선교사(파푸아뉴기니 리히르족)

2) 전국 2007 가을 위클리프스쿨 평가회
일시: 12월 6일(목)~8일(토) 장소: 양평 설곡산 국제기도원

3) GBT 중회
일시: 12월 16일(주일)~21일(금)
장소: 한양대 안산캠퍼스 게스트하우스

4) 28회 캠프위클리프
일시: 2008년 1월 8일(화)~24일(목)
장소: 대전침례신학대학 세계선교훈련원
문의: GBT춘천지부 이지혜 간사 017-383-2416
(chuncheon@v2025.or.kr)

◆ 태권도선교 시범단 훈련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9시~11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1-9791-6055

◆ 새벽날개 워십선교단 모임

1)정기모임
일시: 매주화요일 오후8시~9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2) 2007 기독무용 워십 선교 축제
일시: 12월 15일(토) 오후5시 장소: 국악예술회관(삼천동)
문의: 263-6022, 017-374-2440

◆ 제15회 군복음화 찬양선교대회

일시: 12월 15일(토) 오후6시 장소: 석사감리교회

◆ 강원기독교미술인 개인전시회

❀김명숙 화가 개인전
일시: 12월 17일(토)~12월 21일(수)
장소: 춘천미술관(전화:241-1866)

❀김춘배 서양화가 개인전
일시: 12월 28일(금)~1월 3일(목)
장소: 춘천미술관(전화:241-1866)

◆ 2008학년도 자연유치원 장학생 모집

대상: 개혁교회 복회자 자녀(2002.3.1~2004.12.31생)
장소: 춘천시 후평3동 동사무소 건너편 흰색 5층 건물
일시: 2007년 11월 12일부터 선착순 모집
특혜: 교육비 전액 감면(월 20만원)
문의: 033) 241-5511 미니홈피를 참고
(cyworld.com/jysince93)

◆ 2007년 성탄트리축제

일시: 12월 16일(주일)~25일(화) 16일 오후7시부터 성탄절 연합예배 및 2부 행사(트리점등식 등)
장소: 공지천 야외음악당(수변공원)
문의: 춘천기독교연합회 256-1260

◆ 두란노 큐티본부 춘천 나눔방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30분 (요일 변경 가능)
장소: 베드로 문화 선교센터 3층 304호
문의: 011-373-4828

'미라클 영어회화 훈련소' (인트로8기)

정말 확기적이고 정확한 방법이다. 훈련 수료자들의 입소문이 입증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 매일 춘천까지 와서 훈련받은 친구 소개로 알았어요. 춘천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영어회화 기적이 일어난다!' '미국 현지에서 쓰는 영어가 단 1개월만에 입이 열린다!'
반신반의로 왔던 공개설명회 참석자들이 거의 100% 등록 했습니다!'
'중·고생과 중학 예비생들에게도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단순한 이해'가 아닌,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미라클식 방법으로 '집중적인 훈련'을 해야만 회화까지도 됩니다.]

미라클 체험수기

"미라클 영어는 영어의 핵심 핵을 꿰뚫는 최고의 훈련과정입니다. 많은 시도를 해 왔지만 내가 100시도도 못 오랜동안 영어에 맺힌 한을 이제야 풀게 되었습니다. 이과정은 영어의 구조와 핵심을 그 기초부터 확실하게 잡아주므로 영어 그 자체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핵심적인 이해를 갖게 합니다. 또한 강사의 탁월한 실력 (원어 전체) 및 열정적인 교수의 훈련으로 훈련자에게 영어를 향한 큰 자극과 도전과 흥미를 갖게 합니다. 공인영어점수 따윈 이미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 제일교회 김 근 수 목사-

"영어가 너무 재미있어요 영어를 위해 사업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영어가 너무 쉬운데요 친구들이 너 영어 어디서 배웠니고 물어봐요" "이렇게 쉬운 걸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한 번 듣고 보니 그 간단한 것을 그 어렵게 그리 재단 문법이 너무나 쉽게 정리 되구 습득이 되구요 매일 단어를 까워 외우며 독해를 하는 것도 없는데 통했는지 자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문법은 자신감을 가지고 독해를 하고 또한 속도도 그때 이상 향상되었어요. 집에서 따로 시간을 내서 복습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습득이 되니까 너무 좋아요" "영화가 들려요" "집에서 영어로 꿈을 꿨어요" "길 가는데 영어가 튀어나와요" "3일에서 하루 정도 시간 내고 나니까 문법 없는데 하루하루 가니까 재밌고 영어의 맛이 있어서 시간 반이 언제 지나갔는지 몰라요" "수준 있는 완벽한 영어구사 능력은 완벽한 문법과 독해가 선행되야 한다는 말이 실감이 되요. 문법과 독해 그리고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습득 되고 정말 원기 왕성한 청년들이 "영어 중학생에 제도 정말 추천해주고 싶어요"

- 조1학생 30대 주부까지-

"너무 짧게 설명해 주셔서 아쉬워요 문법이 쉽게 되니까 재미있고 개념이 되서 3시간 반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금방 지나가요.

"영어를 전공하고 있고, 또 영어의 공부했는데도 영어가 잘 안되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요. 영어의 핵심이 한 눈에 들어와요. 중학교 때부터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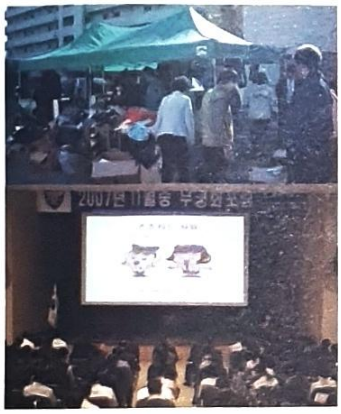
- 한림대학 영문과 재학생-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는 분이라면 다들 그렇겠지만 저 역시 학원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대부분 대다수 회화 시간 영어의 늪에 허덕 했었습니다. 공개설명회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참여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 직장인 모든 분들이 한국인 영어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아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라클 영어회화 훈련소'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이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훈련 방법에 놀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영어 공부 방법은 무엇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영어 문장을 만들 때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어 문장을 만들 때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만들어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영어 공부 방법은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어 문장을 만들 때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으면서 영어 문장을 만들 때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만들어 내

■ 연합회 신임원 수련회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한균목사)는 11월 8일(목)부터 9일(금) 2일 동안 홍천 대명콘도에서 2008년 신임원 수련회를 열고 임원간의 단합과 회기 내 사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사랑나눔바자회와 아동학대예방교육



한국복지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고주에)은 11월 2일(금) 10시부터 16시까지 춘천시 석사 3지구내 춘천종합사회복지관내에서 기금마련을 위한 '사랑나눔바자회'를 열었다. 한국복지재단 춘천종합사회복지관과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한 바자회에서 모여진 기금은 강원도 내 불우이웃 및 학대아동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또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세계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11월 19일(월) 오전 10시 춘천경찰서 5층 강당에서 춘천 경찰서 11월 무궁화 포럼에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의 효과적인 연계체계 마련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이라는 주제로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와 관계법, 사례, 예방을 위한 방안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 안내 및 게임사항, 신고체계안내 등의 내용을 교육하였다.

■ 기쁨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붐네호스피스 기쁨의집에서는 자원봉사자 전체모임을 11월 12일(월) 오전10시 소양제일교회에서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지난 7년 동안 말기 환우들을 돌보며 헌신한 강복숙, 김순임, 오덕영 자원봉사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침석한 모든 봉사자들에게는 기념품을 전달하여 격려하며 오찬의 시간을 가졌다.

■ 예스컴 프레이즈 '이단특강'



예스컴(대표간사:김선희)은 11월 17일(토) 오후6시 중앙성결교회에서 중·고등학생들 약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탁지원 소장의 '이단특강'이 있었다.

교회학교 꿈나무들의 축구대회



제1회 월드비전춘천지회 주일학교 축구대회가 11월 24일(토) 오전9시부터 오후4시까지 공지천 야외축구장에서 열렸다. 월드비전 춘천지회가 주최, 춘천시기독교연합축구회가 주관하고, 춘천종합사회복지관과 신성스포츠가 후원한 본 대회에는 강촌교회, 새춘천교회, 신성교회, 석사교회, 소양제일교회, 중앙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충인교회 총8개팀이 참가하여 어린이들의 축구실력을 뽐내고 축구공 하나로 잔치를 펼쳤다. 이날 뜨거운 열기 속에 우승-신성교회, 준우승-중앙감리교회, 3위-소양제일교회가 영광을 차지하였다. 축구를 전도의 메개체로 발돋음시키고, 춘천지역 교회학교간의 화합을 다지고자 제1회로 열린 축구대회를 통해 점점 축소되어지는 교회학교가 부흥되기를 기대해본다.

춘천YMCA 본관 개관식



춘천YMCA(이사장:이칭찬)는 11월 16일(금)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새로운 본관을 마련하여 개관식 축하행사를 열었다. 지상3층의 새 본관은 YMCA 아기스포츠단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실, 국제와이즈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며 지역 시민과 청소년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춘천장로교연합회 정기총회



춘천장로교연합회(회장:문충식)는 11월 28일(수) 오전 11시 춘천시민교회에서 2007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에서는 신임회장 권기호목사(시민), 수석부회장 김치홍목사(교동), 총무 김원중목사(춘천우리), 부총무 윤대영목사(사랑의), 서기 박상윤목사(주님의), 부서기 한덕현목사(새한빛), 회계 김영명장로(동신), 감사 정재호목사(늘사랑), 한상숙장로(영광)가 각각 선출되었다.

■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행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박재호)은 11월 6일부터 7일 1박2일간 노인복지대학 어르신 40명과 함께 남해안 일대(삼천포, 고성상족암 등)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노인복지대학 학생들은 친목을 다지고 남해안의 아름다운 관광명소를 둘러봄으로써 삶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또, 월드비전은 지난 11월 24일(토) 등록가정 110여명과 함께 인천으로 가족나들이를 다녀왔다. 차이나타운의 개항지 도보여행과 한중문화관과 달동네박물관 관람, 연안부두에서의 유람선관광을 통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결속력을 다졌다.

■ 교역자연합회 임원회

춘천교역자연합회(회장:피종호)는 11월 21일(수) 오전7시 지내리교회에서 2008년도 신임원회의를 열어 친목을 다지고, 1년간의 사역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 장로교 여전도회의 이웃사랑



춘천장로교연합회(회장:문충식)와 춘천장로교연합회 여전도회(회장:이미생)는 11월 23일(금) 탄석재단 소망의집(이사장:한옥수)과 춘천연탄은행(대표:정혜창)에 쌀 20kg 4포대와 후원금을 각각 전달했다. 또 지난달 여전도회 바자회 수익금으로 나눔의동산에 연료비와 생필품을 전달하고 목회자 3가정을 지원했다.

■ 천사들의 합창



제10회 춘천CBS 소년소녀 합창단 정기공연이 11월 24일(토) 오후5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CBS소년소녀 합창단은 음악과 찬양으로 꿈과 희망, 감동이 있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하였다.

'미라클 영어회화 훈련소' (인트로8기)

1. 개강일시: 2008년 1월 3일(목) 오후 6시 40분(시간엄수)
2. 기 간: 1월 3일(목)~1월 29일(화)(매주월,화,목금 6:40~10:10P.M) 1일 3시간30분씩 1개월(16일간 총56시간학습 및 훈련.
3. 훈련단계및 교재 인트로단계 8기. 교재:Interchange(intro)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
4. 장 소: '꿈이있는교회'(교통편:카톨 22번, 28번버스)
5. 본훈련소는:
   (1) 초5,6년생 · 고등학생,대학생, 일반등누구나 참여만 하면 영어컴플렉스 완전해방! 꿈과 비전을 심어준다.
   (2) 영어회화를 공부하다가 더 이상 실력이 늘지 않거나, 어려워서 포기하신 분의 고민을 완전히 해결해 주는 곳
   강사보다 훈련생이 더 말을 많이 하게 한다.
   (3) 영어회화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 최단기간에 (영어)회화를 정복하고 싶으신 분
   (4) 출국이 임박한 분 선교지로 파송될 분, 해외학연수, 유학가기 전에 미리 반드시 거쳐야 할 곳
   (5) 경험자의 입소문을 듣고 타 지역,서울, 부산, 성남, 평택 등)에서도 방학 때 춘천에 원정 와서 훈련 받는 곳.
   (6) 영어핵심을 통해서 훈련시키므로 회화뿐만 아니라 영어공부 전반(리스닝,발음,문법,독해)에 대해 완벽히 핵심을 습득할 수 있기때문에 예비중학생이나 영어에 자신감을잃은 중고생 자녀에게도 매우 좋습니다.
6. 훈련등록마감: 12월 22일(토)까지 선착순 마감(조기마감을 주의 하세요)(☎ 264-0691, 011-396-6239, 010-8250-0688)
7. 공개 설명회 및 체험시간: 1차(12월 1일(토) 오후5시~6시30분) / 2차(12월 15일(토) 오후5시~6시30분)

훈련생 자격: ①기독교 신앙인, ②본 훈련원 수료자의 추천을 받은 자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반드시 2차의 공개설명회 중 1회를 참석한 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창의레고 / 놀이수학 / 한글 논술동화 / 멜타샌드 / 가베 하바 / 수학가베 / 바우픽스 킨더맥스 / 동화구연

BLOCK HOUSE

수 대 상 : 유아~초등 전학년

블록하우스

(애막골 교육원)

차량운행 ☎261-7856

위치 애막골 두산아파트 맞은편 상가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줍니다!

믿음의 기업

GS칼텍스 새만천 주유소

네 하느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신명기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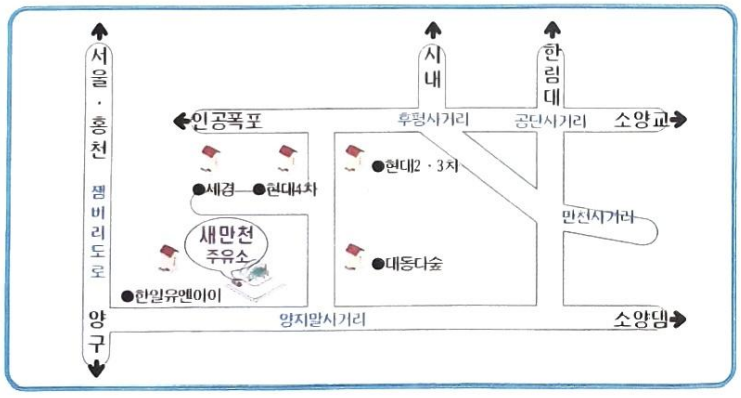



친절한 직원의 최상의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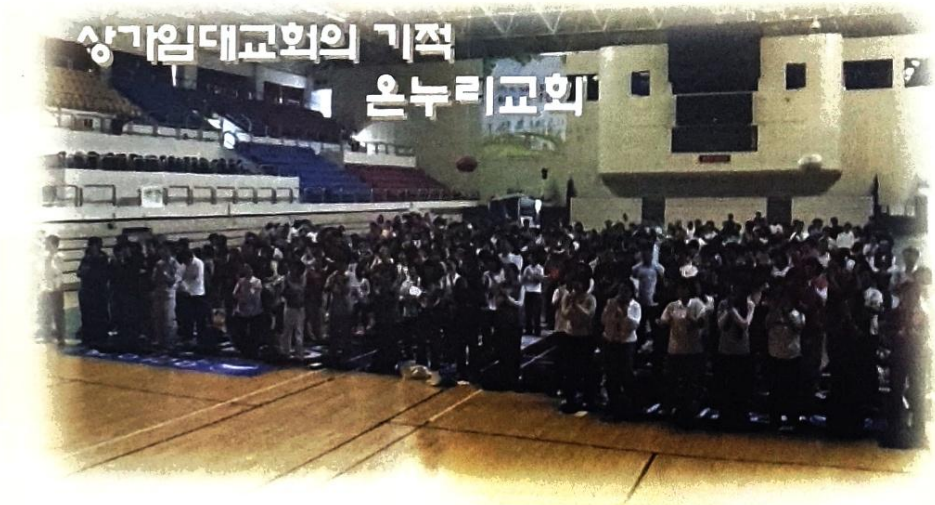

정품 · 정량의 최신 주유기!!


RV차량까지 세차 가능한
고품격 자동 세차기!!


아름다운 새만천 주유소 야경



전 화 : 033)242-0238 | 080-699-5151
대표 : 남궁억 집사(온누리교회에베소학교 춘천6기수료, 부부학교춘천1기 수료 011-9902-3343
김학자 집사(온누리교회섬성생명의말씀영업소장, 부부학교춘천1기 수료 011-708-3343



온누리교회

www.onnuri21.org



교회역사 17년 임대교회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역사회를 섬김과 세계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국내외의 리더들을 키우고 사랑을 베풀하는 사역을 개척한 해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게 하십니다. 온누리성도들은 평범한 지체들이지만 담대한 예배와 불편한 시설이 지장이 되지도 않고 위축될 일도 아니지만 더 뜨겁게, 더 비전하게, 더 헌신된 삶으로 자신과 노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훈련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과 허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3:18)

우리는 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이요 동역자요
그리고 우의 형제로 부릅니다.



사역자 소개

- 담임목사: 김창환
- 교육국,대학부 목사: 임기홍
- 행정국,초등부,청년부목사: 주요환
- 선교국,유년부 강도사: 이상수
- 중등부전도사: 최용배 ※고등부전도사: 한제남
- 대학부전도사: 윤춘선
- 대학부간사: 김태경,최인기
- 고등부 간사: 장소영,유경화 ※찬양팀간사: 치경원
- 유아부 팀장: 기향랑 ※유치부 팀장: 장미자
- 악기연주팀장: 김영호 ※중국지체팀: 이진선
- 영어팀: 김옥기, 고선혜 ※일어팀: 윤정수
- 장로: 류흥헌, 이흥서, 안우용, 김영호, 이천근, 한택수, 이경열

유아부, 유치부, 초등학교, 중 ·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부까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성경적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장년부가 되면 양육과 체계훈련으로 가정과 사회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적극적 믿음의 용사로 훈련, 배양, 파송, 그리고 교육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임재의 충격을 받는 살아있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 회선교적 사역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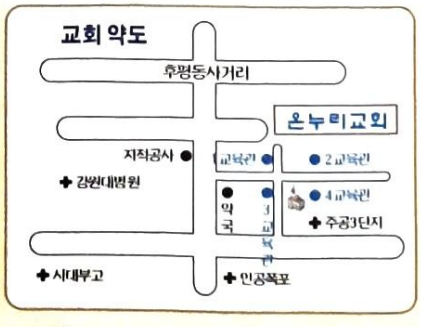
예배시간 안내

- 새벽기도 : 매일 1부 - 5시5분, 1예배실
  2부 - 6시5분, 2예배실
- 주일낮예배 : 1부 - 9시10분
  2부 - 11시
- 주일오후예배 : 2시30분
- 수요예배기도집회 : 7시15분

- 파송선교사 : 6개국 6가정
- 협력후원선교사 : 26개국 32가정
- 후원선교단체 : 16개
- 후원사회사업,봉사단체 : 12개
- 사회봉사시역팀 : 11개

1개의 밀알에 흩어져 있는 교회 - 누구든지 찾으실 수 있고 "밥"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찬양하며 훈련받아 리더가 되어 군사대로 섬길 수 있는 교회, 무릎으로 지가를 만지 간축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 열매교회에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지면들의 기도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의 온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먹을 온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온혜로라(고전15:10)

교회 약도



부흥의 불길 번성, 창궐, 확장!

전화) 242-4189, 253-4188 온누리교회